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6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1:2-1 6,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2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6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1:2-16,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2부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 11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노트패드 12호의 140 페이지에 있는데, 11장 5절을 페이지 중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멈췄을 때, 11장 4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그 덮개는 로마 종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토가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종교적 융합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미지에서 그는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얻었습니다. 11:5에서, 여자들이 회중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를 욱되게 합니까? 11:5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가 머리를 욱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깎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알았어요. 이제, 커버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예상과는 다를 겁니다. 베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처럼 얼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떤 종류의 베일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여성을 구글로 검색하면, 그들이 토가를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자는 공식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토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토가를 사용했고, 그런 면에서 대중 앞에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옷 자체의 일부인 매우 겸손한 유형의 덮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종류의 도상학 기록을 온라인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일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 그리고 그것은 머리고 얼굴이 아닙니다. 베일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간단한 모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단어가 사용되었을 것 같지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 측면에서 이 텍스트의 복잡성의 일부입니다.

11:4에서는 머리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5와 13에서는 머리를 덮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7이 아니라 11.7이어야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관점에서 베일을 쓰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Advice to New Brides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 로마 여성이 베일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이 결혼식에서처럼 그녀가 이제 결혼한 여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베일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용어를 그의 출처에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대신 복합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견해는 이 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지배적인 합성어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용어는 베일링에 사용되며, 이는 여성의 결혼 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사회적 지표였습니다.

오스터는 플루타르코스를 인용하는데, 이는 전례적 상황에서 머리 덮개를 쓰는 로마의 관습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관습에 관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 학자들은 이러한 텍스트의 재구성에서 로마 자료와 기본 자료를 종종 무시합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신부와 신랑에게 한 조언은 신부를 베일로 가리는 것이 결혼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인 카타 칼루페타이(kata kalupetai)를 사용합니다. 즉, 머리 가리개는 로마 문화에서 기혼 여성을 알리는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이 텍스트에서 남성, 여성, 신의 이미지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로마 문화권에서, 그들이 공개 회의에 모였을 때, 여성들은 그저 로마 아내가 되기 위해 베일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Winter가 새로운 로마 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 조금 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근육을 과시하고 로마 제국에서 찾은 새로운 힘과 관련하여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Oster는 11:4에 대한 형편없는 역사적 연구와 구절의 다양한 용어에 대한 비판을 계속합니다.

인용문에서 그는 kata의 소유격이 있는 예가 Murphy O'Connor의 주장의 기초를 훼손한다고 말합니다. 머리 덮개를 쓴 사람을 설명할 때, 플루타르코스는 kata kephales 라는 그리스어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는

머리를 숙인다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1장 4절의 관례적 이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 머리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것을 가리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차이일 뿐이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연구에서 이런 종류의 문구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서 동시대와 그 전에, 우리의 목표 텍스트 바로 직전의 그리스어 자료를 연구하여 노르만식 명명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이한 명명법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 구절은 목 뒤나 머리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성서와 동시대의 그리스 문학은 카타 케 팔레스 라는 구절, 즉 머리에 따라, 머리 아래로, 단순히 머리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언어의 차이, 비밀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이 어떤 이유로든 의례를 어긴 여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왜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로마 고린도의 엘리트 남성이 머리를 가리고 기독교 집회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로마 종교와의 종교적 융합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리고 들어왔다면 아마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를 가리지 않고 들어왔다면 대화가 활발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나중에 Winter와 함께 언급할 새로운 로마 여성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공동체에서 언급해야 할 어떤 면에서의 의례 위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그 시대와 장소에 연결한 설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주요 기사인 오스터와 길, 그리고 윈터는 공적 예배가

새로운 로마 문화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으며, 기독교 집회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사례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남성의 영광이며, 바울은 남성이 회중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범적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논란의 일부를 자극했을 수 있는 문화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터는 남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의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스터에 따르면, 남성은 거의 모든 해설에서 무시당하고 있으며, 로마 식민지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무시와 함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과 관련하여 덮개를 문화적 동기로 설명한다면, 여성은 공개 모임에서 기혼 여성처럼 덮개를 벗지 않고 덮어야 하는 문화적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동일한 패턴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여성을 위한 덮개의 본질에 관해 제안된 몇 가지 예입니다.

이 목록은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많은 글과 해설은 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표지가 상징하는 바보다 표지에 더 매료되는 듯합니다. 표지가 바울이 추구하는 바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면 그는 우리에게 표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그것의 사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표지가 무엇인지에 정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해석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트키는 실제로 그것이 베일이나 모자 유형이었고 오늘날에도 사실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할 규범적인 것으로 봅니다.

메노나이트가 있습니다. 여성은 모자를 쓰고, 아미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혁신파 그룹에서는 여성이 머리 덮개를 써야 합니다. 러시아 교회에서는 여성이 예배 장소에서 머리 덮개를 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특정한 관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노트의 끝에 몇 가지 참고문헌이 있다.

베일이나 모자 형태의 품목이었던 표지는 문화적 이유로 사용되었지만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처방적 텍스트가 아니라 설명적 텍스트이며, 이는 Bibsac 에서 Wilson이 주장한 것입니다 . 세 번째 견해는 표지가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니다. 여성의 긴 머리카락은 가려져 있지만, 아마도 매우 보기 드문 견해일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 마틴은 이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넷째, 표지는 머리카락이 머리에 고정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인기 있는 견해이거나, 여성에 대한 많은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 스타일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톰슨 기사에서 신시아 톰슨이 많은 사진을 제공하고 헤어스타일을 보여줬고, 그것이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토가, 그 남자가 토가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이 입었던 옷도 쉽게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논란이 되는데, 매춘부와 커버 때문입니다. 매춘부는 자신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노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 일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표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로마 종교의 특정 문화적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스터와 길은 둘 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 위로 옷을 끌어올렸습니다.

로마의 사진이 많아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인데, 브루스 윈터가 만든 것입니다. 표지, 특히 표지가 없는 것, 다시 말해 여성, 기혼 여성이 표지를 받는다는 문화적 기대가 없는 것은 새로운 로마 여성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Winter의 책 중 하나는 Roman Wives, Roman Widows, the Appearance of New Women and the Pauline Communities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내부에서 문화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로마에서 근육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여성들이 경기에서 레슬링을 했는데, 이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여 근육을 과시했습니다. 로마법에는 여성과 재산 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권리가 있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성은 그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동안 로마 세계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구절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마도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적 이미지를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문화적 자극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대신, 그는 그것을 다루려고 노력하면서, 글썬요, 왜 당신은 덮여야 하나요, 왜 덮여지지 않아야

하나요? 훨씬 더 온화 해 보입니다 . 그것을 살펴보면, 저는 항상 11장 2절에서 16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논란만큼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바울은 정말 짜증을 냅니다.

11:2에서 16으로, 그가 더 많은 아이들의 장갑을 끼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나왔고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Winter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은 새로운 로마 여성이었을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춘부와 기혼 여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춘부라는 단어를 서구적 의미가 아니라 1세기적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접근성 때문에 약간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의 공개 집회가 본질적으로 야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교회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안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여성들은 로마 문화권에서 새롭게 찾은 자유를 느끼고 교회 문화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맹세를 느끼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했을까요? 그것이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약자와 강자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약자는 베일을 쓰고 강자는 베일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썬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든 문화권 내의 문제였을까요? 이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이 간략한 조사는 모든 해석자를 냉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몇 분 동안 이전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수백, 수천 페이지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독단주의가 고린도전서 11:2-16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 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을 살펴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할지라도요.

또한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하는 각 관점이 다른 관점을 가진 동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단어와 구문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학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큰 창문일 수 있으며,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왔는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하며, 먼저 텍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의 배열에 접근해야 하지만, 해석의 배열이 간지럽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7에서 10까지 계속해 봅시다. 이 텍스트의 흐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문단의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일부를 읽습니다.

남자는 7절에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 문단의 마지막인 12 절의 끝을 보세요.

또한,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보세요, 많이 간과되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이런 이유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큰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독립적이지 않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만 말하게 한다면, 그 이미지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대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입니다.

7~10절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선, 영광의 의미입니다. 7절에서, 여기 뒤로 돌아가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어떤 암호나 비밀 단어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반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남자를 이미지화합니다. 영광은 창세기 1:27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7절에서 9절로 돌아가서, 10절, 핵심 구절, 이런 이유로, 이 연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남자와 여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빛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셨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온전히 되돌려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비뼈의 이야기이고, 남자에게 대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둘은 인간 창조의 전체를 구성하고, 서로 보완적이며, 여러 면에서 동등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텍스트의 주제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창조 이야기는 남자, 신, 여자, 남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Morna Hooker가 말했듯이, Corinthians에 대한 훌륭한 작품이 있는 사람은 남자는 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는 벗겨져야 합니다. 그는 신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이미지이고 상징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녀는 남성-여성의 완성에 대한 필요성에 응답하여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그녀의 머리는 가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회중이나 진행 중인 예배 환경에서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1세기와 오늘날 사이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세기에 이 이미지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머리는 가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덮여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성에 대한 그녀의 복종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텍스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벗은 머리에서 남자를 과시하는 대신, 그녀는 가려져 있으며, 그것으로 그녀는 회중에서 기도와 예언을 위해 온전히 검증됩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dia touta* . 그리스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11장 흐름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dia touta* , 그 줄에 있는 것은 이런 이유를 의미합니다. 추론적 전치사 설정입니다. 여자, *gune* , *ought*, 그리고 그런데 의무의 언어가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는 머리에 권위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곧 알게 되실 텐데, 그게 별로 따르지 않는다는 걸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가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전치사 *epi*인 번역 *on*은 머리 위의 위치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머리 위의 통제를 의미합니까? 보세요, 해석 문제가 있고, 성별 중심의 해석학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 빠르게 둘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해석을 위한 다양한 번역을 고려하세요.

킹 제임스, 머리에 권력을 가진 여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녀가 공급받는다. 매번 공급받을 것이다.

그것은 몸의 다른 부분 때문에 이해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그녀에게 속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ESV는 ESV가 형식적인 문자적 해석, 즉 번역이 아니며 그녀의 머리에 권위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번역입니다. 그들은 상징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에는 없습니다.

NASB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에 권위의 상징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옛날의 킹 지미처럼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NIV에서 그 여자는 권위의 표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표시를 여기로 수입했습니다.

NIV는 역동적이거나 기능적인 번역입니다. 그게 그녀의 머리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TNIV는 제가 넣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TNIV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출판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 권위를 가지게 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천사 때문에 자신의 머리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의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NLT 덮개가 있는 것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권위의 표시입니다. 글썬요, 만약 우리가 의도 주도적 해석학을 즉시 여기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출처 권위, 출처와 권위, 규칙 권위, 출처 기원과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글썬요, 아마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권위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exousia*는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권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권위를 가진 엘리트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 후반부에서 그렇게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여성이 공적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할 권리, 그렇게 할 특권, 심지어 그렇게 할 권한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와 남성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것을 젠더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 읽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그 예배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짐을 가져와서 이 모든 용어에 놓고 다른 항목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징이나 권위의 표시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가 회중 내의 덮개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녀가 권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명확한 해석을 볼 수 있는 TNIV와 NLT와 같은 것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왜 그런 말을 추가 할까요 .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젠더 논쟁에서 이 텍스트에 대해 수천 페이지가 게시되었을 때, 통제를 얻고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Morna Hooker가 쓴 기사가 있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고, 그녀가 통제를 얻고 모든 부과를 제거하고 이 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관점은 여성이 권위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상징이나 기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즉, 남성의 .

그녀는 권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글썄요, 그건 또 다른 논의입니다. 폴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영광, doxa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영광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젠더 논쟁을 이 텍스트로 수입하고 창세기의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바울은 여성을 소외시키거나 남성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는 하나님과의 정해진 관계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남자는 예배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데, 더 큰 성경적 서사 속에서 , 심지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안에서 그녀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이미지에서 각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43페이지 상단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텍스트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내기 전에 텍스트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Morna Hooker는 여성에게 주어진 의무가 그녀가 남성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경우 그녀의 벗은 머리는 그의 영광, 즉 남자의 영광을 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영광이고 그가 그녀의 은유적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의 경우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녀의 머리는 그녀가 남자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신 앞에 있기 때문에 가려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것이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과 그의 천사들 앞에 서 있고, 그들의 앞에서는 인간의 영광이 숨겨져야 합니다.

초점은 그게 아니야. 하느님이 초점이야. 그녀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면, 그녀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야.

그리고 신의 면전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끄러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녀가 머리를 깎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권에서 명예와 수치. 그녀는 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간의 영광이 되게 함으로써 신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그녀가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면, 더 심했을 겁니다. 흉악한 은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오랜 시간 걸린 일이에요.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마치 프레즐처럼 뒤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문헌에서, 모두가 같은 텍스트를 사용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등주의가 무엇이고, 계층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커는 훌륭한 학자로서 그 초점을 염두에 두기 위해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당신은 그 문단을 두 번 이상 읽어야 합니다.

후커는 제2성전 유대 문학 전통에서 천사들이 창조 때 아담을 경배했다고 지적합니다. 제2성전 유대 문학은 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일부는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적 맥락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물려받은 방대한 양의 문학적 자료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사야의 죽음과 같은 것에 대한 증거

텍스트로 신약성서 책에서 인용된 것도 있습니다. 유다는 제2성전 유대 문학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Janice와 Jambres는 이집트의 마술사 이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 그것은 제2성전 유대 문학에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신의 인가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영감받지 않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여자가 베일을 벗음으로써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천사들이 남자를 숭배하도록 오도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신의 은유적 이미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은유적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천사들이 천사들 때문에 남자를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서 신을 놓치지 않도록 여자의 머리를 가립니다.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젠더 관점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이 텍스트에서 생각해야 할 종류의 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커버가 어떻게 권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후커의 분석은 현대의 젠더 논쟁을 뚫고 바울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인용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doxa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1:7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과 경배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동의어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거기서 줄을 벗어났습니다.

영광과 예배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동의어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예배는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고, 따라서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의 관습과 달리 여성도 기도와 예언에 참여한다면, 다시 말해, 이제 그녀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도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예언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머리 가리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남자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지만, 여자에게 주어진 권위나 권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가려져 남자의 영광이 감춰진 상태에서, 그녀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주의를 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의를 끌십시오.

이제, 이걸 모두 은유입니다. 모두 상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은유는 해석되어야 하며, 스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지지 않은 남자, 가려진 여자의 은유에서, 그것은 성별의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훼손하고, 창조의 산물인 인간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역할, 즉 창세기의 이미지에서 창조의 왕관인 인간을 높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든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용문의 끝을 굵은 글씨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상징이 아니라 베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머리 가리개는 바울이 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권위를 줍니다. 기도와 예언에서 그녀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보는 상징주의입니다. 모든 성을 풀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Garland는 이렇게 말했고 Fee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설명을 시작할 때, 그들은 거의 계층주의, 상보주의, 평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마르타 후커는 그녀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잘라내는데, 그런데, 글썄요, 제가 제대로 연결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녀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여러 가지 글을 썼고, 그 중에는 주요 책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티슬턴도 들어와서 후커의 이 본문에 대한 분석을 뒷받침하는데, 그의 책 835~841페이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반복했지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젠더에 대한 모든 견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텍스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남성과 여성이 신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서사와 관련하여 신에게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많은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닌 다른 일, 다른 시간에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텍스트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Winter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Winter는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그는 이 텍스트에서 권위라는 용어에 대한 변형이 여러 사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타, 콥트, 그리고 다양한 초기 교부들은 모두 2차 자료의 일부이며, 일부는 그리스어이고 일부는 콥트어입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오리게네스, 크리스소스톰, 아우구스티누스, 베다.

그들은 베일이라는 단어, 베일 모자라는 실제 단어를 권위라는 단어인 엑소시아 로 대체 하고, 그것에 대한 변형된 독해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변형된 독해는 고린도서의 엑소시아 독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 왜냐하면 가장 좋은 사본, 대부분의 사본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석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해석의 역사는 그 설정에서 여성의 머리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 설정에서 남자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설정에서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천사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에 대한 수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된 질서와 같은 것을 영망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악한 천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그냥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를 관찰자의 일부로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경찰로 봅니다. 욥기에는 어떤 텍스트가 있고,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시자로서 창조와 관련하여 천사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창조된 패턴을 돌보는 천사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되고 또한 예배의 영역에서 이해됩니다. 남자의 영광은 숨겨져야 하고, 여자는 천사 때문에 머리에 덮개를 써야 합니다. 즉, 천사들은 예배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즉,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날개를 머리 위로 접는 이미지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최전선에 있고 천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여성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서사적 복합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는 11:11과 12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주님 안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독립되어 있지 않고, 남성도 여성과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상호성에 대한 진술일 뿐입니다. 평등주의적 교리적 진술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남성과 여성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평등은 1세기 예배 스타일에서 남성은 옷을 벗고 여성은 옷을 입음으로써 입증됩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11:15인데, 여기서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 알겠습니다. 144쪽.

11:15. 13-15. 13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제 당신의 답은 아니요,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머리는 남자를 상징하고,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당신의 답은, 글썄, 그녀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 본문에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그녀에 관한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 자체가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시르인들은 서원의 관점에서 긴 머리를 기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긴 머리를 한 예수의 중세 그림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훌륭한 유대인처럼 덩수룩한 머리카락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영광입니다. 긴 머리는 그녀에게 덮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관례가 없습니다. 15절은 유추나 동일성에서 나온 논증입니다. 바울은 유추를 통해 여자들이 본성적으로 긴 머리를 덮개로 받았지 덮개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언할 때 덮어야 할 필요성을 그 자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었다면, 그것은 머리카락이 덮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해로 삼습니다. 머리카락이 덮개인 이유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국에서는 대부분 회중에서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덮개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글썄요, 현대 여성을 많이 봤다면, 거기에는 덮개가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자보다 짧고, 일부는 머리를 깎고,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성상 남자는 일반적으로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유적인 진술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긴 머리를 하고, 남성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있다. 자연은 유추적 논증으로 여성이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표면적으로 꽤 불안한 구절에 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진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 어려움의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11장 16절에서 킹 제임스,

미국 표준, 또는 개정 표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특정 버전인 NRSV에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안경을 올려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다투고 싶어한다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2011 NIV, 15절을 들어보세요.

16. 누구든지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관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그런 관례도 없고 다른 관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가운데로 갈라질 거야. 순진한 독자로서 그런 관습을 읽지 않고, "맙소사, 그는 엄청나게 많은 회전을 거쳤어. 그냥 하루가 끝나면, 그게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해. 그리고 다른 관습은 없다는 걸 읽었는데, 그건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기대입니다. 글썄요, 표면적으로는 144쪽 중간에 이 번역의 변형은 의미의 차이를 요구합니다.

번역된 관습이라는 용어는 명확하지만, 수정어인 *such or other*가 초점입니다. 귀하의 그리스어 사전은 *such custom*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설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옵션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하루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습은 집단성의 의식적 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 부분에 전통, 권위 있는 전통을 의미하는 패러디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관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는 여기서 패러디시스를 사용했을까요 ?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참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바울이 비판한 것이 그 관행인가? 그런 관행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자는 공적 예배에서 모자를 벗는다. 그런 관행은 없다.

하지 마. 아니면 전통을 지지하는 거야? 다른 관행은 없어. 나는 거기서 그런 종류의 역전을 얻었어.

그런 연습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기사의 저자인 저지는 바울의 예배에 대한 묘사가 전통을 섬기는 문화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즉, 전통은 법의학적 측면이며 확립된 것입니다. 즉, 표지의 특성과 색상, 모자, 머리 스타일 등등입니다. 거기에는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다신교 문화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있다면, 여러분은 모자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현대 세계가 말하자면 그들의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처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Judge는 이 텍스트가 관습을 언급하지만 전통을 언급하지 않는 가능성으로 관습과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바울은 그 구절의 끝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똑똑합니다. 주석가의 조 프라이데이는 피츠마이어 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그의 번역은, 만약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Fitzmeyer 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복잡한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기독교 교회 규율이나 관습, 지금은 교회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호소하고, Schuster, Schuster, Fiorenza는 그것을 권위적 호소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Fitzmeyer의 로마 가톨릭적 연관성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텍스트와 전통의 비유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는데, 그것은 전통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는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도였고, 그의 관습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이 어떻게 우리를 맨 마지막에 세탁기에 던져 넣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바울이 역사적 고린도 맥락의 논쟁적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관습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고린도인, 그것을 문제 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선을 따르고, 당신도 이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석적이고, 다른 것은 그러한 관습이 없는 것보다 더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대부분의 해석과 설명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 모티브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지만, 예배에서 그 모티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데는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습일 것입니다. 즉, 표지 사용에 대한 겉보기의 논쟁은 메타서사의 현실과 다른 모든 교회가 이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재고하고 자신의 관행을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고, 16절의 마지막 것은 해결하거나 다루기 쉽지 않지만, 동시에 적어도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해석에서 우리는 항상 견해를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빛이 우리를 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밀어줄 때까지 생각해 낸 몇 가지 옵션을 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11:2에서 전달된 전통과 11:16에서 언급된 관습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극명한 변화, 패러디적 언어를 어떻게 설명 합니까? 11:2-16의 논쟁의 톤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17-34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는 11:2-16에서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확고하지만 온화하지만, 11:17-34에 이르러서 이단을 다루고 있을 때, 그는 바로 그것을 다룹니다. 11:2-16은 찬양에서 토론으로, 그리고 예의로 흐릅니다.

11:17-34에는 칭찬은 없지만, 특정한 행동을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2-16에서 살펴본 문단과 17에서 살펴볼 문단과 그 다음 문단 사이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볍게 걸은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여전히 창조 모티브를 제시하고, 어떻게 그것과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관습의 변수가 있었지만, 1세기 교회의 공동체는 그것을 채택했고, 계속되어야 하며, 기혼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베일을 쓴 것처럼 베일을 쓴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에서 베일을 쓴 것처럼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 관습을 어김으로써 로마인을 불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냥 멈추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답하지 않을 두뇌 자극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두뇌 자극 문제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이 섹션을 쓰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무엇이 규범적일까요? 무엇이 설명적일까요? 무엇이 창조된 패턴일까요? 무엇이 관습적일까요?

그것은 토론에 좋은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이 섹션을 쓰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글썬요, 본문을 행진하는 한,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본문의 배경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재구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섹션을 먼저 제공하고 나서 텍스트를 가리는 대신, 먼저 텍스트를 살펴본 다음 이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1~4, 5, 6에서는 약간 다르게 작업했는데, 너무 강해서 거기서 하는 게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덜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겨울의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그는 그것에 대해 글을 썼고, 기사와 *New Roman Wives*에 대한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글머리 기호, 남자들이 베일을 썼을 때, 감탄사.

Oster, Gill 등의 기사는 베일을 쓰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 남녀 모두에게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Winter는 이 패턴이 종교적 활동을 주도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Corinth의 사회적 엘리트에게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반성합니다. 이 로마 관리들은 종교 의식을 주관할 때 토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고, 아마도 시민 또는 법적 행사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윈터는 만약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기독교 집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 그들이 갈대를 앞으로 내밀고 그것을 뽑아올렸거나 예언할 때, 그러면 아마도 낮은 지위의 사람들도 따라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교도의 종교적 융합과 사회적 지위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 고린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합법적인 갈대입니다. 둘째, 그리스어 단어인 *gune* 은 단어인데,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 인 *gune* 과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인 *gune*이 발음에 하나 있습니다 .

문맥만이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남편, 남자, 남자, 남자, 남편에게 해당됩니다. 문맥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여자 또는 아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은 그것이 아내로 번역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베일과 우두머리 비유에 대한 언급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신부와 신랑에게 한 조언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베일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남편과 아내를 지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적 예배라기보다는 가정 규범이었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그것은 본문에 완전히 다른 관점을 던진다. 겨울의 새로운 로마 아내 시나리오. 높은 지위의 여성들이 남성에게 성적 이중 기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회 장면, 남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여성이 소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가부장주의에 질려, 그들의 합법적인 아내들이 새로운 사회적, 성적 행동 패턴을 만들기 결정했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로마 연대기에서, 이것은 로마의 지위 있는 여성들이 로마에서 반문화적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들을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신혼부부에게 한 침실 연설은 아내가 남성의 우연한 성적 만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연회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마침내 아내들에게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여성과 그들의 행동의 현실은 분명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남성 중심적 가족 가치관을 구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법률은 실패한 듯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 중이었던 로마 내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출판물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146번의 첫 번째 글머리. 기혼 여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베일을 썼지만, 아마도 자신의 집에서는 베일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인 주택에서 모였습니다. 모임 때 베일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게 무슨 일이였을까요? 베일을 쓰지 않은 아내는 모욕입니다. 바울이 11장, 5장, 6절에서 분명히 지적했듯이요. 바울은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처벌받은 간통녀가 창녀의 지위로 전락하는 사회적 낙인과 동일시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하지 않을 가정 교회에서 느슨해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기독교 아내와 새로운 로마 여성을 구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아내 중 일부는 새로운 로마 여성과 어울리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연루로 인한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회적 관습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로마 문화에 양보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일은 종교적이거나 창조된 패턴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11:7과 10에서 바울은 윤리적 의무를 의미하는 두드러지고 강력한 그리스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당신에게 ought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특정 사회적 관습을 통해 결혼의 높은 지위를 보여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베일을 쓰지 않아야 했고, 그것은 로마 당국과 종교적 관행과의 종교적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분명한 결혼의 표시는 베일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머리에 결혼의 권위나 표시를 가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에 대한 권위를 행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exusiaiō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여자는 결혼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별적 요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구조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신성한 구조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1:14에서 자연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자연을 문화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남성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성애자로 낙인찍었습니다

모든 1세기 문화는 다양한 관습에 의해 성별의 극성이 정의되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길이는 11, 14, 15에서 정확하게 언급된 로마 코린트의 그러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짧은 머리는 또 다른 관습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결혼을 상징하는 신호로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정된 관습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긴 머리를 한 중세 그림도 없애고 싶습니다. 1세기 로마 남자들은 보통 수염이 있는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의 그림이라고 보이는 것은 중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복원품에 불과합니다. 없애세요.

146에 대한 마지막 글머리. 초기 교회의 공적 및 종교적 관행을 위한 정기적인 공개 모임은 이교 종교의 종교적 관행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로마를 기리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1세기에 많은 로마인들은 종교를 사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영화 속 글래디에이터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작은 손 신을 가지고 다녔고, 주머니에 넣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이웃들에게는 이상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정치적 용어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종교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상징적 표현이 없었고, 우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때문에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다고 덧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인 풍습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인 교회는 처음으로 로마인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사도행전 11:26에서 이를 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라틴어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는데, 이는 로마인이 사용했다는 의미이며 정치적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라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인의 인식입니다. 고대의 집단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과 외부인이 그들을 인식하는 방식은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EP 샌더스는 Jewish and Christian Self-Definition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좋아요, Winter, Gill, Thistleton,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문화적,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문화를 이해하고, 로마 문화를 연구하고,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기본 자료를 읽는 사람만이 신약 연구에 이를 적용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구를 보고, 내부 설명을 보고, 특히 서신 문학에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젠더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층주의 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지분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현장에서는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위한 협의회와 성경적 평등을 위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웹사이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구글링해서 어떤 이유로든 주소를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면 당신을 은폐할 만한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견해를 담은 책이 쓰여졌고, 기사가 쓰여졌으며, 저널이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보완주의라는 단어를 조심하라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계층 구조가 아닌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 평등을 위한 기독교인들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 정말 많아요. 제 성경이 텍사스로 가기 전에, 그곳 도서관에 있었는데, 5,000권이 넘는 책이 있어서 플로리다로 전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가르치기 위해 몇 가지를 재구성했을 뿐이에요.

저는 젠더 논쟁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찬 만, 만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있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자료를 주었으므로 당신이 직접 가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요 출처와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2차 출처를 찾지 마세요. 기독교인 평등을 위해 글을 쓰는 사람에게서 성경적 여성성을 위한 협의회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평등을 위해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위한 협의회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에게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의 입으로 가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독교인의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교리적 진술입니다.

이제, 이건 긴 문서입니다. 148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페이지 매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네, 148페이지는 노트에 있어야 하지만, Danvers Statement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Danvers라는 도시에서 북동부에서 만났기 때문이고, 그 성명은 198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뉴잉글랜드에서 열린 연례 복음주의 신학 협회 회의에서 입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보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텍스트를 연구하고 사물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제 질문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원한다면 둘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거운 의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길고 긴 진술입니다.

148에서 시작하여 거의 20페이지 또는 약 19페이지까지 이어지며, 자세하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낫다고 말하는 세부 사항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Christians for Biblical Equality 성명서는 다소 간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더 긴 성명서를 넣었지만, 저는 그들의 신앙 성명서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만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읽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견해에 대한 보다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을 얻으려면 그들의 문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에 엄선된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엄선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참고문헌으로 사람들을 때려눕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더 나은, 더 중요한 자료일 뿐입니다. 몇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벡과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사역에서 여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런 뷰북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매우 도움이 되므로,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한 계층 주의자인 웨인 그루뎀이 여기에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복음주의 페미니즘과 성경적 진실, 100개 이상의 논란이 되는 질문에 대한 분석. 따라서 Wayne Grudem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David Gill, 바로 위에, 머리 모양과 관련된 로마 초상화의 중요성, 고린도전서의 머리 가리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제가 건너뛰는 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몇 가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Richard Oster, 제가 당신에게 언급한 When Men Wear Veils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이건 당신이 읽어야 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로널드 피어스,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 편집된 책입니다. 꼭 봐야 할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John Piper와 Wayne Grudem의 다음 강조된 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John Piper는 또한 계층주의자이며,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A Response to Evangelical Feminism입니다. 기사가 많고, 두 책 모두 편집되었습니다.

각 진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견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시아 톰슨, 헤어스타일에 대한 중요한 책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중요한 기사가 있습니다.

브루스 월트키, 오늘 적용되는 일반 모자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브루스 윈터, 로마의 아내, 로마의 과부,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이 있는데, 이 텍스트에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가 줄 수 있는 한 많은 종합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자세한 노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텍스트입니다. 정말 도전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숙제를 해야 합니다. 문헌을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일을 시작해서 이런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핵심 아이디어, 핵심 모티프, 그리고 텍스트 자체를 먼저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특별 의제 해석적 기사와 책을 시작하세요. 이는 무수히 많은 항목입니다. 그러니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최고의 소원을 전합니다.

성경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성경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그 견해에 대해 서로 격렬하게 논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때로는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의 후반부를 뵈겠습니다.

노트를 찾아봐. 노트패드 번호 13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6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1:2-16,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2부입니다.